

주부의 life style과 구매태도가 가계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金正淑*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인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V. 결 론

I. 서 론

가계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소득수준이며,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구성변수로서 가계구성원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요인들이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소비자의 개성화 및 타인지향적인 현대사회의 특징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life style 문제가 각광을 받아 소비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형태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소비단위인 단일상품 시장의 소비자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신의 생활목표와 생활실제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상호연관시켜 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하나의 life style을 형성·연출하는 생활자로 전환하였다(김순미, 1985). 그러므로 가계의 소비지출 연구에서 새로운 분석방법인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하는 것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행동에 대한 life style 접근 방법이 그 개념의 추상성과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논란이 되고는 있으나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자료들의 불충분함이 인정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되고 있기 때문에(Wells, 1975), 최근에 들어 life style 접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ife style이란 사회전체 혹은 사회일부 계층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문화나 특정 집단의 life style은 다른 문화나 다른 집단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김동기, 1977). 이러한 life style은 가족의 소비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어떤 가족은 소득의 대부분을 과시적인 소비에 써버리나, 또 다른 가족은 자녀교육이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에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족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소비패턴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life style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패턴은 적어도 life style의 개념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각각 독립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대중소비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자에 의한 선전광고가 가계의 욕망을 자극하여 수요를 만들어 내는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도 있다(失島鈞次, 1977).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행위의 상당한 부분은 엄밀히 계획된 행동이라기 보다는 쇼핑과정 중 외부자극에 의해 어떤 사전 경험을 연상하게 되거나, 구매시점에서의 필요유발에 의하거나 또는 일시적·즉흥적 감정, 분위기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서성한, 199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가계구성변수 이외에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태도 요인이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목인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가계구성변수,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및 구매태도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인 배경

1. life style

life style pattern의 개념과 marketing과의 관계가 William Lazer에 의해 소개된 1963년 이래로 life style patterns과 소비자 행동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가장 넓게 이용되고 있는 life style의 측정방법은 여러가지 진술문들을 평가하는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방법으로서, 이것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으며 중요한 관심분야,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및 여러가지 활동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Plummer, 1974).

life style이란 "소비자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활동), 자신의 환경내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관심),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의견)의 측면으로써 확인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유동근, 1993). 즉 life style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Engel, et al, 1986)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화, 가치관, 생활의식 및 행동양식 등의 총화이며, 문화·사회계급, 준거집단 및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며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인 것이다. 이러한 life style은 개인의 감정, 태도, 의견 뿐만 아니라 일생

의 행동방식에도 폭넓게 작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사회계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및 소비행동을 통하여 반영되게 된다. 특히 대체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이 크다(오상락, 1990).

Reynolds 등(1977)은 현대적인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과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현대적인 여성은 생활에 대한 태도와 사상(事象) 및 일로부터 자유로웠고 그들의 관심은 세계주의적이었다. 현대적인 여성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낙천적이었지만 그러나 자동차와 같은 중요한 구매에 있어서는 주의 깊은 소비자였으며 실용주의적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보다 격렬한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조건과 빈번한 참여에 대한 관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보다 현재의 생활상황에 대하여는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 낙관적이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여성은 현대적이기는 하였지만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현대여성의 가치구조는 전통여성의 가치구조와 그 종류에 있어서는 비슷하였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Venkatesh(1980)는 여성을 전통주의형, 중간형, 여권신장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life style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권신장론형은 성고정관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나타냈으며,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동과 육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더욱 자신감이 있었다. 반면에 전통주의형은 생활단순화제품(life simplification products)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T.V 보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smas(1982)는 life style과 소비패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life style을 7개 집단으로 나누고 제품은 7개군으로 분류하여 life style과 제품분류군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life style과 제품군 간에는 강한 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구매태도

구매행동의 유형이나 구매상황에 대한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분류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연구가 많이 행해 졌다. Woods는 구매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인지적 소비자, 가격-인지적 소비자, 충동적 소비자, 정서적 소비자 및 미분류 소비자(새로운 소비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Stone은 상점 선택과 구매과정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경제적 소비자, 사교적 소비자, 도의적 소비자 및 무관심한 소비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도 Cornell대학의 The Housing Research Center에 의한 다른 연구 조사에서는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소비자, 가족적 소비자, 개인적 소비자, 분류되지 않는 소비자 등 4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박혜경, 1992).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한 가지 이상의 구매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인지적 구매자가 되나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충동적인 구매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소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수 요인이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소비자인지 자동차는 권위를, 화장품은 성숙함을 나

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동기에는 합리적인 구매 동기와 감정적 구매동기가 있다(戶田正吉, 1980).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소비자는 감정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기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심이나 우월성에 의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기를 교묘하게 자극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모든 제품이나 상품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은 선택적인 것이다.

준거집단도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李宗夏 譯, 1986). 준거집단의 영향은 表出的 價値(expressive value)를 가진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의복, 차, 가재도구 등과 같이 남에게 보이는 제품은 준거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기호를 반영하는 제품이나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적다고 느끼는 제품일 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은 강해지게 된다. 개인은 소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준거집단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Fry와 Siller(1970)는 제품과 상표의 선택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제품의 선택행동은 서로 다른 계급들간의 여성들 사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ouglas의 연구결과는 일에 대한 태도, 역할 선호 그리고 역할 행동이 식료품의 구매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Roberts & Wortzel, 1979).

Roberts와 Wortzel(1979)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소비와 관련된 역할(식료품 구매와 준비)중 하나와 관련된 여성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고용이나 역할이나 경력지향(career orientation)은 식료품의 구매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식료품 준비에 대한 관심은 구매목표와 구매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열(1982)은 1970 - 1980년간에 있어서 식료품비는 45%이상이 가구요인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된 것이라고 하였다.

최은숙(1986)은 농가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광열비를 제외한 모든 가계지출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설명변수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모든 비목의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山口久子(1967, 1971)는 가계구성원수가 가계의 생활비 지출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가계구성원수의 다소가 각 비목의 소비지출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구성원수의 효과가 강한 비목은 저소득수준 사회에 있어서 식료품비였으며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원수의 효과는 + 값을 나타냈다고 하였다(山口久子, 1967). 그리고 소

득효과와 구성원수의 효과가 식료품비의 지출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비, 부식비 및 기호식품비에 미치는 구성원수의 효과는 소득효과보다 크며, 지출구성비의 변화는 주로 구성원수에 의해 결정되고 소득효과는 은폐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山口久子, 1971).

Lee와 Phillips(1971)는 농가가계가 농촌 비농가가계에 비하여 식료품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Anderson(1971)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특히 10대이하의 어린이가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사회경제적 지위나 혹은 소득수준보다도 편의식품의 구매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afstrom과 Dunsing(1972)은 재화의 소비에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만족을 기초로 하여 현재지향 재화(present oriented goods)와 미래지향 재화(future oriented goods)로 분류하여 두개의 지출범주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교육탄력성은 총식료품비, 외식비, 주류, 담배, 연료, 피복, 여행, 이·미용 등과 같은 현재지향 재화에 대해서는 모두 무의미하였으나 주거비, 오락, 보건의료, 선물과 기부 등과 같은 미래지향 재화에 대해서는 유의하였으며, 분류되지 않은 지출범주인 총생활비, 가계운영, 기타지출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Michael(1972)은 교육의 중립성 모델(neutrality model)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치재로 분류된 비목 중에서 교육탄력성이 +인 비목들은 외식, 가계운영, 여가, 교육 등이었으며 필수재로 분류된 비목들 중에서 교육탄력성이 -인 비목들은 식료품비, 담배와 이·미용 등이었다. 그리고 주류, 보건의료, 피복 및 교통 등은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Addel-Ghany & Foster, 1982에서 재인용)

Abdel-Ghany와 Schrimper(1978)는 식료품 지출에 미치는 주부의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가계의 소득수준 이외에 주부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가계의 식료품 지출의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탄력성은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소득탄력성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Abdel-Ghany와 Foster(1982)는 분석에 이용한 15개의 지출비목중에서 식료품과 가구집기, 설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 있어서 주부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담배, 실용품, 주류, 교통, 이·미용 및 보건의료 등의 지출에 있어서는 -의 교육탄력성을, 교육, 독서, 오락, 주거, 가계운영 및 피복 등의 지출에 있어서는 +의 교육탄력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한편 Editor와 Publisher는 여성의 고용상태가 식료품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냉동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Aderson은 반대의 발견을 보고하였다(Roberts & Wortzel, 197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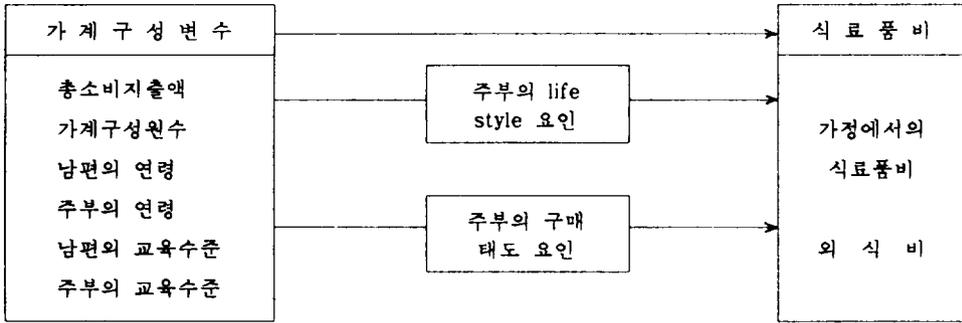
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계구성변수는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
- 2)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태도는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 3) 가계구성변수와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및 구매태도는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 모집

본 연구는 대구직할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류층별무선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혹은 설문지를 배부한 뒤에 다음날 회수하는 유치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0년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가계수지의 파악이 곤란한 가계, 단독 가계, 농가, 응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계 및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이 20만원 미만인 가계와 200만원 이상인 가계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가구는 632 가구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로서 그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측정도구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방법은 분석수준과 자료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인 AIO(Activities-Interest-Opinions)법을 사용하

였다. AIO법은 소비자들의 일상활동, 주변사물에 대한 흥미, 사회적, 개인적 문제 등에 관한 의견들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Engel et al, 1986).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은 관련된 선행연구(이차옥 1983; 김동기 1984; 이용학 1985; Wells & Tigert 1971; Plummer 1974; Reynolds et al 1977; Roberts & Wortzel 1979; Cosmas 1982)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가정과 주부의 활동을 고려하여 가족, 취미, 여가활동, 유행, 외모, 재산, 자신감 및 일상생활 등에 대한 관심이나 의견 및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총 42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며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34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방식(Likert type)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일수록 점수가 높다.

2) 구매태도의 측정도구

주부의 구매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관련된 선행연구(김진균 1971; 이용학 1985; London & Bitta 1979; Roberts & Wortzl 1979; Venkatesh 1980)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합리적인 구매, 가격, 상품의 질, 상표, 준거집단 및 충동구매 등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21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들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일수록 점수가 높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SPSS PC+ program 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방법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직교회전방법(orthogonal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회전하였다. 각 요인의 명명은 요인적재값이 높은 변수에 비중을 두어 행하였으며, 관련된 중요 변수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기준(0.3이상)으로 선택하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이상)과 변수의 누적변량율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5. 설명변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설명변수는 가계의 구성원수, 연령,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남편 및 주부의 교육수준 등의 가계구성변수와 주부의 life style 요인 및 구매태도 요인이었다.

연령은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을 사용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에서, 남편의 연령과 주부의 연령 사이에 너무 높은 상관관계($r=0.9$)가 존재하여, 회귀분석에 있어서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 때문에 두 변수를 한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 요인은 가족생활주기의 대리변인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총소비지출액은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인으로서 사용되었다. 단기에 있어서 가계는 소득수준에 의해서 보다는 총소비지출액에 의해서 더 많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되었다. 총소비지출액의 사용은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Wagner & Hanna, 1983).

6. 식료품비의 분류

식료품비로 지출되는 각 품목들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2개의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비목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식료품비의 소비지출 내용

가정에서의 식료품비	곡류, 육류, 유류, 유란, 어개류, 해초, 채소, 과일, 유지,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외 식 비	식사대, 음주대, 기타 외식

각 비목내에서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대체나 보완은 있을 수 있으나 비목간에는 대체나 보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비목의 효용은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요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가계구성 원수	2인	97	15.4	총소비 지출액	40만원미만	138	21.8
	3인	115	18.2		40-60 만원	155	24.5
	4인	189	29.9		60-80 만원	130	20.6
	5인	148	23.4		80-100만원	112	17.7
	6인이상	83	13.1		100만원이상	107	16.9
남편의 연령	30세미만	64	10.1	주부의 연령	30세미만	108	17.1
	30-35세	119	18.8		30-35세	106	16.8
	35-40세	98	15.5		35-40세	96	15.2
	40-45세	88	13.9		40-45세	92	14.6
	45-50세	92	14.6		45-50세	99	15.7
	50-55세	95	15.0		50-55세	78	12.3
	55세이상	76	12.0		55세이상	53	8.4
남편의 교육수준	7년미만	62	9.8	주부의 교육수준	7년미만	87	13.8
	7-10년	101	16.0		7-10년	173	27.4
	10-13년	216	34.2		10-13년	235	37.2
	13년이상	253	40.0		13년이상	137	21.7
계		632	100.0				

<표 3> 주부의 life style 유형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 외모·유행 추구경향	19. 나의 생활과 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다.	0.71823
	33. 옷을 멋있게 잘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0.69493
	17. 남비가 있더라도 운택한 생활을 추구한다.	0.61440
	28. 나는 잡지에 있는 유행 화보를 보곤 것을 좋아한다.	0.59079
	10. 매일 입는 옷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0.58835
	23.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좋아한다.	0.58755
	5. 나는 유행을 빨리 받아 들이는 편이다.	0.57017
25. 나는 가능한 한 자주 미장원에 간다.	0.46179	
요인 2 : 가족중심 여가활동 지향	3. 시간이 나는대로 가족단위 소풍을 자주 간다.	0.69819
	9. 우리 가족은 함께 외식이나 극장구경을 종종 간다.	0.65729
	16. 나는 등산, 테니스, 스키 등과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긴다.	0.59448
	8. 나는 취미활동 모임(요리학원, 꽃꽂이, 헬스클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0.56110
	15. 나는 에어로빅, 수영, 볼링 등 실내운동을 즐긴다.	0.55804
	6. 취미생활의 도구 등에 신경을 쓴다.	0.55263
	32. 나는 가족들의 안락이나 편의를 위해 기구나 설비를 배치한다.	0.40915
31. 대화를 즐기면서 식사를 하는 편이다.	0.37731	
34. 나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0.33118	
요인 3 : 자신감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	0.59248
	24.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될 때 당황하지 않는다.	0.56747
	13.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보통 나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느낀다.	0.56519
	1. 나는 대부분의 사회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0.50162
	20. 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첫 인상을 만드는 편이다.	0.49262
27.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있게 해 낼 수 있다.	0.47601	
요인 4 : 여유·안정 지향	11. 유우머와 오락이 있는 생활이 좋다.	0.59903
	12. 나는 마춤복보다는 기성복을 더 많이 구입한다.	0.58103
	4. 사교와 대화를 넓히고 싶다.	0.56163
	2. 여가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듣기를 좋아한다.	0.46931
	21. 즐겁고 평온하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	0.38676
요인 5 : 재산추구 경향	30. 땅, 주택에 관심이 있다.	0.65402
	26. 성공한 미술가나 작가보다는 성공한 사업가를 더 존경한다.	0.57856
	29.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역시 인생의 척도가 된다.	0.47385
	22. 장사, 사업에 관심이 있다.	0.3088
	14.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밖에 나가기 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0.39849
18. 저축, 재산증식을 추구한다.	0.36358	

2. 주부의 life style과 구매태도에 대한 요인 구성

1) 주부의 life style의 요인 구성

주부의 life style의 유형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5개의 요인과 그 요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의 총 설명변량은 45.4%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로 산출되었다. 각 요인의 표준화된 항목의 알파계수는 약 0.59 - 0.80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부의 life style을 구성하는 5 가지의 요인은 요인 1 :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 2 :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 3 : 자신감, 요인 4 : 여유·안정지향, 요인 5 : 재산추구경향 등으로 명명하였다.

2) 식료품의 구매태도에 대한 요인 구성

식료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의 구매태도를 요인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3 개 요인과 그 요인을 구성하는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표 4>와 같다.

요인 1에서 요인 3까지의 총 설명변량은 46.9%였다.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계수로 산출되었는데 각 요인의 표준화된 항목의 알파계수의 범위는 약 0.65 - 0.77이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식료품의 구매태도를 구성하는 3 가지의 요인은 요인 1 :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 2 : 준거집단·충동구매경향, 요인 3 : 상표·품질중시경향 등으로 명명하였다.

3. 가계구성변수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계구성변수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소비지출액과 가계구성원수였으며,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소비지출액, 가계구성원수 및 주부의 교육수준이었다.

가계구성원수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영향을,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구성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은 증가하게 되지만 외식비의 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의 구성원수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될 것이므로 가계의 외식비의 소비지출은 이러한 가계구성원의 감소와 더불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구성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계구성원수

<표 4> 식료품의 구매태도에 대한 요인 구조

요인명	문항번호 및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 가격중시 합리적인 구매경향	14. 식료품 구입시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위하여 여러 상점을 둘러 본다.	0.72547
	9. 작은 식료품일지라도 가격을 고려해 보고 산다.	0.71574
	11.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들의 가격이 변하는 가에 신경을 쓴다.	0.69000
	8. 신중히 생각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식료품 만을 산다.	0.66983
요인 2 : 준거집단 충동구매 경향	19. 식료품의 지출예산을 주의깊게 세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한다.	0.60393
	3. 가능한 한 돈을 절약하여 가장 싼 값으로 식료품을 사려고 노력한다.	0.58439
	10. 주위 사람들이 구입한 식료품을 보고 나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다.	0.78312
	6.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서 먹으면 나도 사게 된다.	0.70168
	18. 다른 집과 비교하여 우리집의 식생활 수준이 뒤떨어진다고 생각될때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0.67296
	4. 살 계획이 없었던 식료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0.61921
	13. 상점을 지나다가 눈에 띄는 식료품이 있으면 사는 경우가 많다.	0.60369
	12. 우리의 식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 지가 중요하다.	0.54267
	15. 요즘에는 검소한(분수에 맞는) 식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0.44115
	요인 3 : 상표·품질 중시경향	17. 잘 알려져 있는 상표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2. 유명상표의 식료품을 사기위해 비싸다고 생각되더라도 기꺼이 지불한다.		0.61233
7. 가장 품질이 좋다고 생각되는 식료품 만을 산다.		0.59861
1. 값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식료품을 선택한다.		0.57601
16. 식료품에 있어서의 상표명은 아주 중요하다.		0.57152
5. 식료품에 대한 표시내용을 비교해 보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산다.		0.48601

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품의 소비지출을 우선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의 구성원수의 증가는 필수적인 식료품비의 지출은 증가시키게 되나, 사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외식비의 지출은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식료품비의 소비에는 규모의 경제성(Price, 1970)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 소비가 증가되기는 하지만 정비례하여 증가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연령과 남편의 교육수준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모두 유의

〈표 5〉 가계구성변수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계구성 변수	가정에서의 식료품비	외 식 비
총소비지출액	0.668***	0.622***
가계구성원수	0.094*	-0.250***
연 령	-0.026	-0.076
남편교육수준	-0.046	-0.025
주부교육수준	-0.019	0.171**
Constant	27707.2	7190.7
Adjusted R ²	0.591	0.437
F	90.184	48.170

- 1) 모든 계수는 회귀분석에 의한 표준화 회귀계수이다.
- 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3) 연령은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이다.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로써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의 소비지출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가계의 총소비지출수준 이외의 가계구성변수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 보다는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요인들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가계의 구성원수의 감소나 주부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앞으로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4. 주부의 life style과 구매태도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주부의 life style과 구매태도가 가계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life style 요인은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과 여유·안정지향 및 재산추구경향 요인이었으며, 구매태도 요인에 있어서는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이었다.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life style 요인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과 자신감 및 여유·안정지향 요인이었고, 구매태도 요인은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과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이었다. 이들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life style 요인은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과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이었으며, 구매태도 요인에서는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과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이었다. 그 이외의 요인들은 모두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은 주부가 여유와 안정을 지향하고 재산추구경향이 강할수록,

<표 6> life style 및 구매태도가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life style 및 구매태도	가정에서의 식료품비	외 식 비
외모·유행추경향	-0.141**	0.055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0.044	0.216***
자 신 감	-0.020	0.082*
여유·안정지향	0.010*	0.069*
재산추구경향	0.081*	-0.046
준거집단·충동구매경향	-0.012	0.005
합리적인 구매경향	-0.042	-0.197***
상표·품질중시경향	0.168***	0.084*
Constant	165699.5	25306.4
Adjusted R ²	0.227	0.298
F	22.586	27.263

1) 모든 계수는 회귀분석에 의한 표준화 회귀계수이다.

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그리고 구매태도에서 상표·품질중시경향이 강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외모·유행추구경향이 강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외식비의 소비지출은 주부가 가족중심·여가활동을 지향할수록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여유와 안정을 지향할 수록, 구매태도에서 상표·품질중시경향이 강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합리적인 구매경향이 강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부의 life style에 있어서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무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무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유·안정지향 요인은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모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의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모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식료품비 소비지출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준거집단·충동구매경향 요인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모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은 모두 준거집단·충동구매경향 요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료품의 구매에 있어서는 표출적 가치 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기호나 식성이 더 중요시되고, 그리고 주부들이 식료품에 대해

서는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준거집단은 표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5.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대한 경로분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계구성변수와 주부의 life style 및 구매태도 요인은 가계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교육수준, 연령 및 가계구성원수 등의 가계구성변수는 식료품비의 소비지출 뿐만 아니라 주부의 life style이나 구매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계구성변수는 주부의 life style이나 구매태도 등의 요인을 통하여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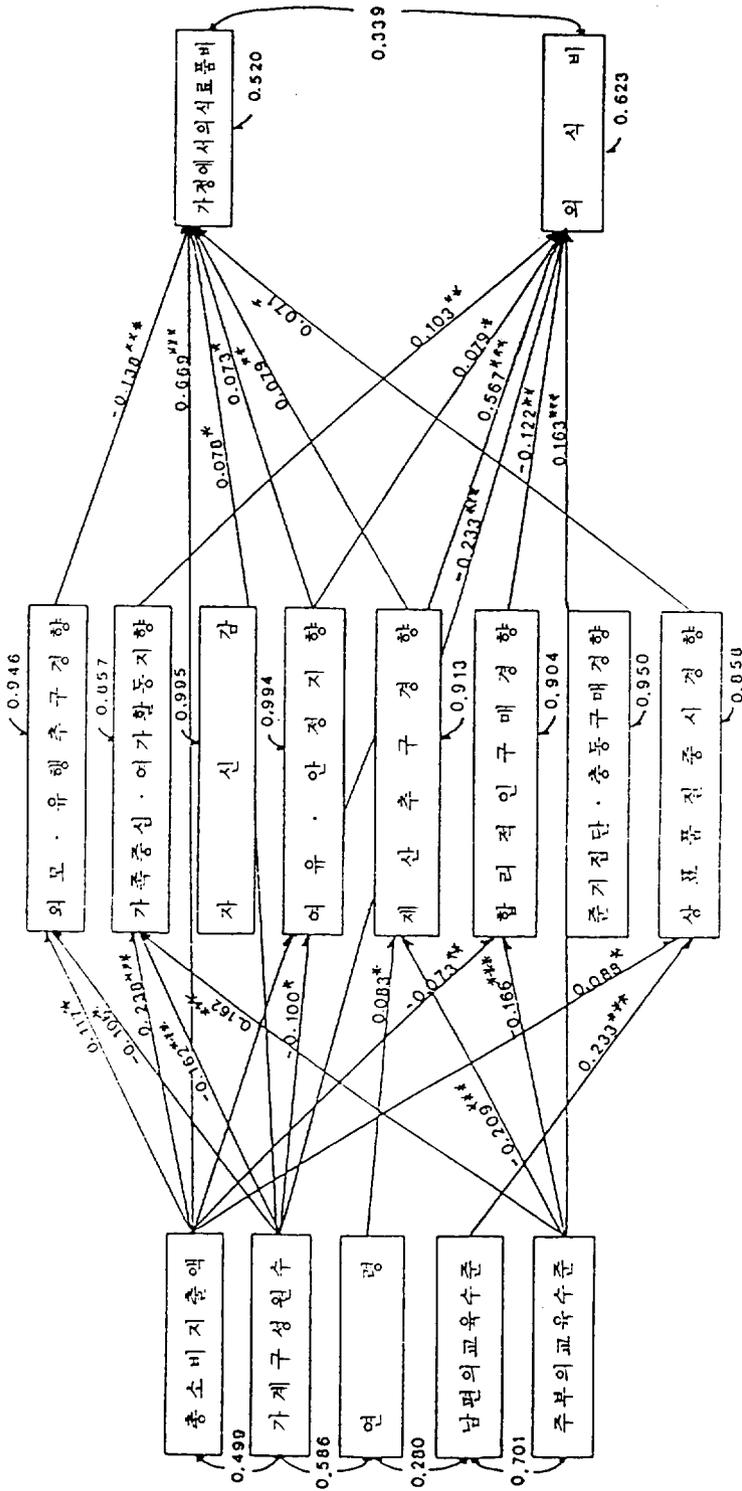
<그림 2>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가계구성원수, '외모·유행추구경향', '여유·안정지향', '재산추구경향' 및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 등이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은 '외모·유행추구경향'과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하여, 가계의 구성원수는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을 통하여, 연령과 주부의 교육수준은 '재산추구경향' 요인을 통하여, 남편의 교육수준은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에 있어서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부의 life style은 외모 및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상표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의 총소비지출수준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을 통해서 -의 영향을,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해서 +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가계의 구성원수가 많아질수록 주부의 외모 및 유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낮아지게 되어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부는 재산추구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주부의 교육수준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편의 교육수준은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하여, 주부의 교육수준은 '재산추구경향' 요인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상표와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부의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주부의 재산추구경향이 낮아지게 되어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편,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이외에 가계구성원수, 주부의 교



*p<0.05, **p<0.01, ***p<0.001

<그림 2>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대한 경로분석

육수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및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이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및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을 통하여, 가게의 구성원수는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과 '여유·안정지향' 요인을 통하여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과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즉,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이 증가될수록 주부의 life style은 가족중심·여가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구매경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은 간접적으로도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주부의 교육수준도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과 같은 경로로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가게에 있어서의 구성원수의 증가는 가게의 총소비지출수준이나 주부의 교육수준과는 달리 직·간접적으로 모두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가게의 구성원수가 많아질수록 주부는 가족중심, 여가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외식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V. 결 론

가게의 총소비지출액과 가게구성변수 그리고 주부의 life style 및 구매태도 요인이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게구성변수는 가게의 총소비지출액이었으며 가게구성원수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영향을 미쳤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식비의 소비지출에는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life style 요인은 '외모·유행추구경향', '여유·안정지향', '재산추구경향' 등의 요인이었으며, 구매태도 요인은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이었다.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외의 요인은 모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life style 요인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자신감' 및 '여유·안정지향' 요인 등으로 모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구매태도 요인에서는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이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가게구성변수는 주부의 life style과 구매태도 요인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은 '외모·유행추구경향',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해서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에 +의 유의한 영향을,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을 통해서는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계의 구성원수는 '외모·유행추구경향' 요인을 통해서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에,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을 통해서는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남편과 주부의 평균 연령은 '재산추구경향' 요인을 통하여, 남편의 교육수준은 '상표·품질중시경향' 요인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족중심·여가활동지향' 요인을 통해서는 외식비의 소비지출에 +의 유의한 영향을, '합리적인 구매경향' 요인을 통해서는 -의 유의한 영향을, 그리고 '재산추구경향' 요인을 통하여서는 가정에서의 식료품비의 소비지출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參 考 文 獻

- 金東基, 새로운 마아케팅 發想法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Life Style 마아케팅의 展開를 中心으로-, 經營論叢, 22, 高麗大學校, 1977, 19-44.
- 김순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적 모형, 충남과학연구지, (12), 충남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985, 193-205.
- 金晉均, 農村에 있어서 生産과 消費行爲의 社會的 心理的 要素, 經濟論集, 10(2), 서울大學校, 韓國經濟研究所, 1971, 49-79.
- 朴惠徹, 購買論, 修學社, 1992.
- 서성한, 消費者行動論, 박영사, 1991.
- 오상락, 마아케팅원론, 박영사, 1991.
- 李次玉, 우리나라 都市 居住 家庭主婦의 라이프 스타일에 關한 實證的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 李容鶴, 就業主婦의 消費者行動에 關한 實證的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5.
- 崔銀淑,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 유동근, 消費者行動原理, 미래원, 1993.
- 李宗夏 譯, 消費者 行動과 마아케팅관리, 박영사, 1986.
- 戶田正吉, 家庭經濟學, 酒井書店, 1980.
- 失島鈞次, 新しいミクロ 經濟學, 春秋社, 1977.
- 山口久子, 家族의 構成員數가 家庭의 生活費構成에 及ぼす影響, 家庭學雜誌, 18(5), 1967, 324-327.
- , 食物費의 支出構成比에 及ぼす所得效果と人員效果의 影響, 家庭學雜誌, 22(2), 1971, 141-147.
- Abdel-Ghany, M. and A. C. Foster,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1982, 21-28.

- Abdel-Ghany, M. and R. A. Schrimper,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ducation of the homemak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4), 1978, 283-292.
- Anderson, W. T. and L. L. Golden,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 A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1984.
- Anderson, W. T. Jr., Identifying the Convenience Oriented Custo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May 1971, 179-183.
- Engel, J. F., Roger D. Blackwell and Poul W. Miniard,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1986.
- Cosmas, Stephen C., Life styles and consumption patter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March 1982, 453-455.
- Hafstrom, J. L. and M. M. Dunsing, 1972; Satisfaction and education :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arch Journal*, 1, 4-12.
- Lee, F. and K. E. Phillips,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3, 1971, 573-582.
- Loudon, D. L. and A. J. D. Bitta, Consumer Behavior: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79.
- Plummer, J. T., January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 1974, 33-37.
- Price, D. W., Unit equivalent scales for specific food commoditi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2, 1970, 224-233.
- Reynolds, F. D., M. R., Crask, and W. D. Wells, The modern feminine life style, *Journal of Marketing*, 41, July 1977, 38-45.
- Roberts, M. L. and L. H. Wortzel, New life-style determinants of women's food shopping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43, Summer 1979, 28-39.
- Venkatesh, A., Changing roles of women - A life style analysi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September 1980, 189-197.
- Wagner, J. and S. Hanna,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q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3), 1983, 281-291.
- Wells, William D., Psychographic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7, May 1970, 196-213.
- Wells, W. D. and D. J. Tigert., 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4), August 1971, 27-35.

Summary

A Study on Behavior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in Urban Household Budgets

Kim Jeong-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f the factor which influences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 For thes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on 632 households.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were categorized to 2 items. The SPSS PC+ program was used to process dat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sis.

Not only the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the size of the household, average age of husband and wife, and education background of husband and wife, but also factors of the wife's life style and purchasing attitude directly influences on consumption expenditure of food category. Since environmental variables of family affect the life styles of house wives and purchasing attitude, it was also inferrable that these variables influence indirectly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food.